# 장흥 '농촌지도자 상징탑' 입지 논란

## 장흥군의회 "농업기술센터 정면 설치 관공서 표지석 혼선…이전해야"

## 지도자연합회 "도내 절반 이상이 농기센터 입구에…아무런 문제 없어"

장흥 관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설치된 '농촌지도자' 상징탑〈사진〉을 두고 장흥군 의회와 지도자연합 회원들 간에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장흥군 의회가 지난해 11월 초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건립 준공과 함께 센터 입구에 세워진 농촌지도자 상징탑이 부적절하다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백광철 의원 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연합회의 대형 상징탑이 농업기술센터 관공서 표지석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새로 건립된 기술센터가 장흥 관문에 위치해 장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혼선을 주며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작 농업기술센터 산하 학습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농촌4H연합회' 상징탑은 기술센터 뒤편에 세워져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지도자연합회 측은 "농촌지도자협회는 76년의 역사를 지닌 단체로 '우애, 봉사,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창달에 선도적 역할로 농업기술센터 산파를 해온 명실상부한 학습단체"라며 "상징탑 역시 도내 절반 이상이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상징탑이 세워져 있는 현실이라는 건립 위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장흥군 농촌지도자연합회(전회장 강평원)는 새로 신축한 기술센터 건립계획 시기(2019년)에 맞춰 상징탑 기금운동을 전개 총 2900만원 가운데 2820만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준공식 날인 지난해 11월 7일에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장흥군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기념 조형물을 장흥 관문에 설치한다는 여론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자연합회측과 내부 조율을 거쳐 올 3월 중에 농촌지도자 상징탑을 4H연합회 인근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시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 국비 1억원 확보…26개 프로그램

나주시청사 출입문에 부착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판.

나주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첫 선정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28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며 장애인 학습권 보장과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애·비장애 사회통합, 장애인식개선, 직업능력 향상 및 자립지원, 기관별 역할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구축, 문화·예술, 인문, 건강 등 일상생활' 등 장애유형별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나주=김민수 기자 kms@

# 함평군 방범용 CCTV 고화질로 모두 바꾼다

## 마을회관 16곳 신규 설치

함평군이 방범용 CCTV를 고화질로 모두 바꾼다.

함평군은 군민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 저화질 폐쇄회로(CC)TV를 시인성이 우수한 고화질로 전면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신청해 올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5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곤봉산 등산로,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저화질 CCTV가 설치된 55곳이다.

고화질 CCTV로 교체되면 객체가 흐릿하게 보여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지능형 CCTV 도입(300개)과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16곳) 추진 등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강진 백련사 동백림.

# 23일부터 열흘간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

## 청자축제와 함께 열려

강진군이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를 도암면 백련사 동백숲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

만덕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백련사의 역사문화를 함께 품고 있는 백련사의 동백숲은 1500여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봄이 되면 7m 높이의 동백나무들이 일제히 동백꽃을 피워내는 눈부신 장관을 연출한다.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돼 있으며, 백련사는 다산 정약용이 혜장스님과의 깊은 우정을 나눈 역사적 공간으로, 강진군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동백의 풍경을 통해 강진의 새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처음 축제를 개최한다. 백련사 동백 축제의 개최 기간은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와 같아 기간 내에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은 강진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백축제장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청자축제장은 강진의 대표문화유산인 청자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준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2024년 봄축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동백축제장에서는 ▲동백숲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한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무료인화 서비스 ▲동백숲 스토리텔링 ▲'청렴으로(路)' 워크온 스탬프 투어 ▲다산초당 서각체험 ▲동백숲 걷기대회 ▲동백꽃 그리기 ▲동백림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형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장성군 소상공인 5대 지원사업 펼친다

## 점포 개선·임대료·이자 차액 보존

##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설치도

장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실 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었다.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상인공 지원사업으로 '점포 경영개선', '점포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추진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 한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도색, 내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1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은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한다. 한도는 업체당 1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장성지역 소상공인은 29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061-390-7352)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담양군 이달부터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

담양군이 이달부터 '중소기업 1사 1 담당제'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앞으로 담양지역 455개 기업체와 6급 이하 공직자를 일대일 연결해 지원한다.

오는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기업체를 찾아 의견을 들은 뒤 담양군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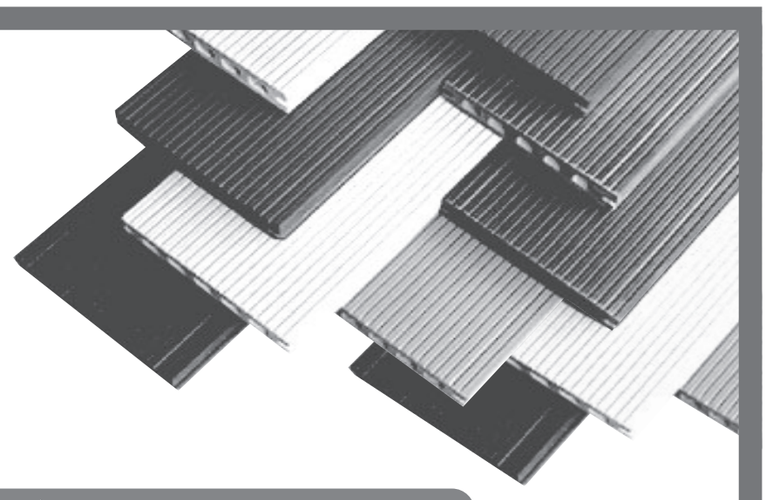
담당자는 현장 출장이 곤란하거나 임용된 지 6개월 미만인 공직자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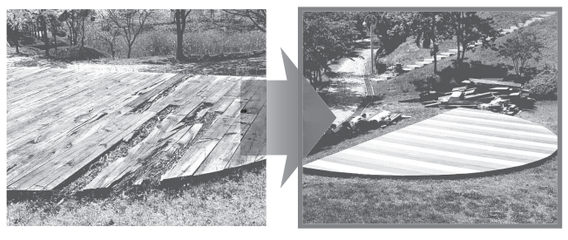
기업 지원과 함께 주요 시책과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장학금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사회공헌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안내하고 필요 인력과 근로 실태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정부 차원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1사 1담당제 운영이 각종 의견수렴과 시책홍보를 위한 성공적인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제기된 전반의 건의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